

# 발전적인 관계로 상생하기를 기원하며

Hope to stand together with expansive relationship



엄익준 | Um, Ik-jun  
한국기술사회 회장

먼저 김영수 회장의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1965년 창립된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건축사협회가 김영수 회장의 취임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듯하여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다년간의 공직생활과 행정경험들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여 힘차게 정진하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김영수 회장이 취임 시 말한 건축사의 위상정립과 회원을 위한 협회의 역량 강화, 건축사의 새로운 가치방향 설정, 이것들은 취임사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현재 기술사회에서 추진하여 실행중인 PE Vision Forum의 핵심내용인 기술사 위상 제고와 개혁을 통한 기술사의 발전적 변화 등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상제고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두 협회가 가진 비슷한 목표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상제고,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50년은 역동적인 산업발전의 시기였다. 건축사, 기술사 모두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큰 기치 아래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였다. 경제발전의 주역, 한강의 기적, 자긍심, 사명감... 이 당시 건축사나 기술사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인들에겐 이제는 과거 고도발전의 시대가 추억과도 같은 시기가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의 시장과 국경의 장벽은 없어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장벽은 높아져만 가는 실정에서 국내에서는 정책·구조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술인들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업을 영위하기 힘든 기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소위 위기라는 것이 찾아왔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선 이공계의 위기, 건설업계의 위기 등의 말이 언급된 지 수년이 지났다. 위기가 바로 기회라지만 당장 탈출하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기술인 개개인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최신기술에 대한 배움을 지속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형화, 조직화 되어가는 기술시장의 변화에 맞춰 모습을 바꿔야한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겨지는 물처럼 유연하게 그때그때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기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해야한다. 이러한 행보에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야함은 물론이다. 협회가 정책적으로 기술인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동시에 행정적인 지원으로 뒤를 든든히 받쳐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 양 협회의 첫 번째 목표인 위상제고는 만드는 결과가 아닌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적천석(水滴穿石), 한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면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큰 힘이 되어 목표 앞에 놓인 장벽을 부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1963년에 건축사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기술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1965년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가 창립된 해이기도 하다. 올해 취임한 신임회장들의 목표도 비슷하다. 이처럼 양회는 역사를 나란히 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기술인들의 위상정립과 제도발전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서 상생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필자는 30여년간의 공군 시설장교를 마치고 CM교육원장, CM협회 이사, 한국VE협회 부회장, 국방부 특별기술심의위원,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3월부터 한국기술사회 회장에 취임하여 활동 중이다.